



호스피스 아! 호스피스

조근순

(한호협 충청대전지부지부장/
충북대학교 병원 원목실장)

호스피스 환자에게 다가 설 때 누구나 처음은 어색하게 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.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? 그리고 그 인사 후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?

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? 라포라고 하는 신뢰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?

이런 기교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자로서의 자세나 태도, 그리고 왜 나라는 사람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려고 하는지 먼저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. 수많은 봉사의 영역이 있지만 나로 하여금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봉사하도록 이끌어 온 동기는 무엇인가?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. 불란서의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"너"라는 소설에 보면 인간의 너는 최후에 정복되어야 할 분야라고 한다. 세계 최고의 천재 주인공이 체스를 두게 되면서 마지막 적수인 컴퓨터와 대결하게 된다. 세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스 결승전에서 승리하게 된다. 그런데 약혼녀 네덜란드의 최고 슈퍼 모델과 그 날 밤 잠을 자다가 죽게 된다. 신문에는 "사랑에 치여 죽게 된다"라고 보도가 나온다. 두 사람의 기자가 이 천재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...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? 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. 15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. 생존을 위한 원초적 동기, 안락을 위한 부차적 동기, 성애, 분노, 칭찬을 듣기 위한 의의감,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열정, 종교, 뇌 속에 있는 최후 비밀의 장소에 대한 약속과 실행, 사랑 등등이다. 나는 무슨 동기로 호스피스를 하려고 하는가? 오늘 호스피스는 이 동기가 튼튼해야 무한 발전하고 활성화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연합운동이 잘 되어 가리라 믿는다.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 하나님이가 장 기뻐하시는 동기로 봉사할 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는 바이다.

그리고 봉사자 나 자신이 먼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죽어가는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 것이다. 주검을 쓰레기 치

우듯 아무렇게나 치워 버리는 사회나 개인은 생명과 삶 또한 쓰레기 대하듯이 할 것이 틀림없다.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다. 그 이념을 스스로 수정하고 그 이념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.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 죽음을 거쳐 삶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살맛이 있다는 것이다.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모습을 그려 보지 못하고 살게 내버려 두실까? 아마 내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죽을지 가르쳐 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이 될 것이다.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살겠지마는 악하고 추한 일들, 간사하고 요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는가? "나 10년 후에 죽는다면 이 고생 하지 않는다"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!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, 그 의도는 인간이 감히 측량하지도 못하는 것이다! 우리는 죽음과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.

얼마 전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죽음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국에 와서 임종하신 자기 어머니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평상시 자기가 활동할 때의 사진의 모습과 서로 어디가 다른지 살펴보라는 질문을 하였다. 그는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정답을 말하였다. 우리는 시체 옆에도 가기 어려운데 사진을 같이 찍은 그는 분명 우리보다 죽음과 친숙한 분이랴 생각이 된다.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었다. 그리고 "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"라는 말씀도 하셨다. 우리는 하나님이 호스피스 생명사랑 운동을 심히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봉사해야겠다.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런 신념도 가져보았으면 한다. 나는 적극적이다. 나는 합리적이다. 나는 부지런하다. 나는 끈기가 있다. 나는 목표가 있다. 나는 내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. 나는 자신이 있다.

나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한다.

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봉사자로 불러 주신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 자신의 삶 또한 사랑하면서 호스피스 제공자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해 본다.